

정전회담을 둘러싼 북한·중국 갈등과 소련의 역할

박영실(한국학중앙연구원)

1950년 10월 19일 중국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도하하였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은 이제 남북 간의 내전을 넘어서 본격적인 국제전의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중국의 6·25전쟁 참전 결정은 단순히 사회주의 국가였던 북한의 요청으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이는 북한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중국의 정규군이었던 중국인민지원군은 한반도에 지원(志願)의 형식으로 파견되었고, 위기에 처해 있던 북한군을 도왔다. 그러나 중국인민지원군이 전쟁에 참전한 후 작전지휘권의 불일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북한과 중국은 1950년 12월 연합사령부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스탈린의 지시로 연합사령부의 주도권은 중국이 갖게 되었으며, 이후 철도관리권 역시 중국 측에 귀속되었다. 1951년 7월 10일 정전회담이 시작되면서 회담 의제 문제로 북한과 중국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회담 초기 북한은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 북한의 위신이 손상되지 않는 한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하였지만, 회담이 지연되면서 조기 정전을 원하였다. 그러나 정전회담 의제 중 제4항인 포로 문제 논의가 시작되면서 중국의 전원 송환 원칙 고수로 정전회담은 지연되었고, 북한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가속화되었다. 결국 1953년 정전협정이 이루어진 계기는 스탈린의 사망이었다. 6·25전쟁은 북한과 중국이 진행하였지만, 스탈린이 북한의 전쟁 도발을 승인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정전협정 체결 역시 스탈린의 사망으로 소련정부의 입장

이 변경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주제어: 정전회담, 6·25전쟁, 중국인민지원군, 전쟁포로, 북한중국 갈등

1. 서론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된 한반도는 미·소 양국의 점령으로 분단되었고, 이후 6·25전쟁으로 남한과 북한은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6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남북한은 갈등관계를 노정하고 있고,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주변국과의 역학관계의 설정 속에서 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은 남북한 통일문제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주변국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북한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였다. 1910년 경술국치 후 한반도에서 조국 해방을 외쳤던 독립 운동가들은 중국으로 망명하여 활동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중국의 국공내전에 참전하여 중국 공산당에서 활약하였다. 또한 북한은 한반도가 해방된 이후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후방기지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러한 북한의 지원은 동북3성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으로부터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북한과 중국은 혈맹국이라고 불리며, 중국은 6·25전쟁에 직접 참전하여 북한을 지원하였다.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킨 6·25전쟁은 3년여 동안 진행되었고, 그 과정 중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은 정전회담이었다.¹⁾ 정전

회담은 전쟁이 지속되면서 유엔 측과 공산 측 모두 더 이상의 인적·물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된 것이었다. 하지만 간단히 해결될 줄 알았던 정전에 관한 논의는 1951년 7월부터 약 2년여 간 지속되었고, 정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소련의 스탈린 사망이었다.

정전회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정전회담의 전개과정,²⁾ 정전회담에 임하는 각국의 입장,³⁾ 그리고 정전회담에서 가장 오랜 시

-
- 1) ‘정전’과 ‘휴전’의 용어는 연구자들의 개별적 선택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 원래 정전(停戰)은 ‘전투 행위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고, 휴전(休戰)은 ‘적대 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나 전쟁은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비록 두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만, 1953년 7월 27일 유엔 측과 공산 측 사이에 조인된 협정의 한글 문서에는 ‘정전협정’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협정의 실시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를 ‘군사정전위원회’로 부르고 있다. 박태균, “정전협정인가 휴전협정인가,” 『역사비평』, 통권 73호(2005).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협정문에 기재된 ‘정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2) 김계동, “한국전 휴전협상의 추진배경 연구: 전선의 안정과 정치적 결말 모색,” 『한국군사』, 1권(1995); 김선숙, “한국전쟁의 휴전협상 과정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이병태, “6·25전쟁의 휴전회담 과정 고찰,” 『전쟁문학』, 제21집(2005);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3) 신복룡,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비밀 협상에 관한 연구: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1집 2호(1987); 김성희, “한국전쟁의 휴전회담에 관한 연구: 쌍방의 협상기법을 중심으로”(경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이병주, “한국전쟁 휴전회담 신석: 중국 측 신자료로 본 공산군 측 협상전략·전술,” 『중소연구』, 58(1993); 신진·김년수, “남북한 관계에 나타난 협상의 이론과 실제: 휴전회담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9(1998); 양규승, “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이병주, “공산 측과 한국전쟁 정전회담: 스탈린, 마오쩌둥의 협상지도와 전략적 목표의 차이점,” 『군사』, 제5호(2003); 김행복, “한국전쟁과 휴전회담,” 『통일로』, 통권 191호(2004); 阪田恭代, “미국의 한국전쟁 휴전에 관한 기본방침의 형성: 중국 참전과 UN군 총퇴각을 중심으로,” 허진영·이진성 옮김, 『군사』, 제63호(2007).

간을 들인 포로 교환⁴⁾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이것은 전쟁이 지연된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정전회담을 유엔 측과 공산 측의 대립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전회담의 지연 이유가 단순히 유엔 측과 공산 측의 대립만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갈등 역시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양측의 대립과정을 다룰 것이다.

최근 러시아 측 자료가 공개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지만, 정전협정과 관련해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등한시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정전회담의 지연과정 및 체결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정전회담 중 북한과 중국의 갈등과 소련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⁵⁾

4) 조성훈, “미국 자료를 통해 본 휴전협상의 지연 요인 연구: 포로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통권 79호(2000); 여용덕, “휴전회담과 포로 교환,” 『전쟁문학』, 제27집(2007).

5)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논문으로 중국 학자인 양진삼(梁鎭三)의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이 있다[양진삼,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이 논문에서 필자는 ‘중국군의 출병을 둘러싼 갈등’, ‘작전통수권을 둘러싼 중국과 북한의 갈등’, ‘38선을 넘은 후, 계속 남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철로 운송 관리체제를 둘러싼 갈등’, ‘정전협정 체결 시기를 둘러싼 갈등’으로 나누어 북한과 중국의 갈등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역사학자인 그는 당시 중국의 결정 및 행동을 중국 측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으며, 전쟁기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냉전 시기 사회주의 진영의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로만 평가하고 있고, 북한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2. 중국의 6·25전쟁 참전과 전쟁의 주도권 장악 과정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전쟁의 추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미 김일성(金日成)은 3월 30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И. В. Сталин)에게 개전에 대한 동의를 구했고, 5월 15일 베이징을 방문하여 마오쩌둥(毛澤東)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을 도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마오쩌둥은 전쟁이 시작되면 “중국은 장차 선양(沈陽)에 하나의 부대를 배치시켜 남한이 일본군을 끌어들이려 군사행동을 할 경우에 북한에게 필요한 원조를 제공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⁶⁾ 국공내전기에 북한의 도움을 받았던 마오쩌둥은 북한의 남침을 지지하였다.⁷⁾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되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政令) “군사위원회조직에 관하여”를 채택하고, 빠른 속도로 전쟁을 전개하였다. 북한의 전쟁수행과정은 전적으로 소련에 의존하

6) “蘇聯外交部關於朝鮮戰爭的背景報告(1966年 8月 9日)－關於1950～1953年朝鮮停戰及停戰談判,” 沈志華 編,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 下冊(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92), 1346面.

7) 조선이 해방된 1945년 말 김일성은 직접 단둥(丹東)에 가서 그 지방에 있던 수만 명의 중국인 부대들을 신의주를 통해 임강(臨江)과 장백(長白)지방으로 철수하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1946년 초 김일성은 마오쩌둥이 파견한 특사를 만난 후 각종 무기와 화약, 탄약, 의약품 등의 군사물자들을 중국으로 보냈고, 산둥성(山東省) 지방에 있던 팔로군을 배로 태워 남포항을 거쳐 북만지역으로 이동시켰다. 김창호, “중국인민의 동북해방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투쟁,” 『력사과학』, 제2호(1994), 19~20쪽; 그 외에도 국공내전 시기 북한은 중국 해방전쟁을 돕기 위해 중국 대내적으로는 ‘조선주제 동북국판사처’라고 하며 대외적으로는 ‘평양리민공사’라는 상설기관을 평양에 설치해 중국 공산당이 전쟁 중 필요한 물자수송과 인원수송을 담당하였다. 중국의 2차 국공내전 시기 북한은 중국 공산당의 ‘배후지’, ‘해방구’의 역할을 담당했다.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5), 201쪽.

여 진행되었다. 북한의 전쟁계획 작전을 기획하고 진행한 주체는 소련 고문단이었고, 이들은 각 사단의 작전계획 수립과 지형정찰 과정에도 참가하였다.⁸⁾ 그리고 북한 내 조직 개편에 관한 주요 사항들은 북한이 소련고문단에게 조언을 부탁하여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정하였다. 또한 무기 역시 소련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었다.⁹⁾ 하지만 전쟁 개전 한 달 전에 김일성으로부터 전쟁 준비를 통보받았던 마오쩌둥은 전쟁 발발 후 3일째 되는 날, 북한의 영관급 장교를 통해서 전쟁 소식을 알게 되었다.¹⁰⁾

김일성은 전쟁 초기 모든 필요한 물자를 소련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참전을 예상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연합군이 전쟁에 참전하자 북한 지도자들은 외부 도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일부는 미 공군의 대대적인 폭격에 대해 소련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박헌영(朴憲永) 역시 소련의 도움과 함께 중국군의 파병 지원을 제기하였다.¹¹⁾ 하지만 김일성은 중국이 직접 참전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다.

8) 당시 소련의 자료 수집 및 보고 내용은 소련군 현역 육군중장인 라주바예프가 작성한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2·3권(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전선 상황에 대해 북조선 지도부와 나눈 대화에 대하여, No. 439, 1950년 7월 4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70~71쪽.

10) “Recollection, Shi Zhe, ‘Mao Zedong Comments on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25 and 28 June 1950,” Zhang Shuguang and Chen Jian eds., *Chinese Communist Foreign Policy and the Cold War in Asia—New Documentary Evidence, 1944~1950*(Chicago: Imprint Publications, 1996), p.153.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조선인민군 지휘기관들의 재편성과 조선인민군의 전투 활동에 대한 보고서,

중국이 이 전쟁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 계기는 미군 제7함대가 타이완에 진주했기 때문이었다. 마오쩌둥은 타이완해방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즉각적으로 7월 7일 국방보위에 관한 제1차 회의를 소집하여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 동북변방군(東北邊防軍)을 조성하도록 결정하였다.¹²⁾ 동북변방군이 조성된 후 1950년 8월 초 군단장 덩화(鄧華)가 전쟁의 정세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북한지역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그 일행들은 압록강을 건너 안동(安東)이라는 마을에 도착해서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북한이 중국 측 인사들을 전투지역 근처에 접근할 수 없게 하였기 때문이었다.¹³⁾ 전쟁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8월 11일 경 중국정부는 1951년으로 예정되었던 타이완 공격계획을 일시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¹⁴⁾ 이는 당시 중국이 6·25전쟁의 판도에 따라서 타이완과의 전쟁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인천상륙작전의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적으로 선발대 5명을 파견하였다. 이에 평양에 도착한 차이권우(柴軍武)¹⁵⁾는 김일성과 면담 후 북한 최전선의

No. 468, 1950년 7월 7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75쪽.

- 12)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제1권, 오규열 옮김(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01쪽.
- 13) 햄버스텝, 데이비드, 『콜디스트 윈터』, 정윤미·이은진 옮김(서울: 살림, 2009), 512쪽.
- 14) “Telegram, CCP Central Military Commission to Chen Yi, 11 August 1950,” Zhang Shuguang and Chen Jian eds., *Chinese Communist Foreign Policy and the Cold War in Asia—New Documentary Evidence, 1944~1950*, p.157.
- 15) 차이권우(柴軍武, 1915~?): 정전회담 전 차이청원(柴成文)으로 개명, 허난성(河南省) 주이핑현(遂平縣) 출신, 1936년 중화민족해방선종대 가입, 1937년 10월 팔로군에 참가, 동년 중국 공산당 가입. 항일전쟁 시기 중국인민항일군정대학교 부정치지도원, 팔로군 전방 총지휘부 참모처장. 해방전쟁 시기 진차지(晋察冀) 위권취(豫軍區) 사령부 정보처 처장, 중원군구 사령부대참모장, 제2야전군

지형조사에 착수하였다.¹⁶⁾

한편 김일성은 9월 15일 미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과 9월 28일 유엔군의 서울 탈환으로, 소련의 개입 없이는 더 이상 전쟁을 진행할 수 없다고 소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¹⁷⁾ 하지만 소련은 6·25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회피하는 한편, 중국에게 전쟁에 참전할 것을 독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있던 소련인들의 철수를 서둘렀다. 슈티코프(Т. Ф. ШТИКОВ)는 9월 20일 전쟁 상황이 악화되자 북한 주재 소련 기관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 아래 이 기관의 일부 업무 요원들을 철수시키겠다고 보고하였다.¹⁸⁾ 그러나 그로미코(А. А. ГРОМЫКО)는 슈티코프가 소련 기술자 일부를 소련으로 소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합리적이지만, 북한의 상황과 관련하여 소련 전문가들을 북한에서 소환하는 일은 북한 정부에서 발의가 나오는 경우에만 있을 수 있고 먼저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¹⁹⁾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김일성은 소련의 도움을 기다리다 지쳐 직접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9월 말 김일성은 북한의

사령부 정보처처장 등.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서남군구 사령부 정보처처장, 중화인민공화국 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참사,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전담관 대표단 비서장, 조중방면연락군관, 담판대표, 조선군사정전위원회 위원. 陳忠龍 主編, 『中國人民志願軍人物志』(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997), 843면.

16) 시성문·조용진,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윤영무 옮김(서울: 한백사, 1991), 92쪽.

17) 대한민국 외무부, 『한국전쟁 러시아 관련 외교문서』(1994.7.20. 내부용 번역본).

18) “葛羅米柯關於撤回駐朝鮮蘇聯工作人員呈史達林的請示(1950年 9月 30日),” 沈志華 編,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中冊(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92), 566면.

19) “소련 외무성 제1부상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련 전문가들과 소련 기관 직원들의 소환 절차에 대한 결정 초안, No. 182-III, 1950년 9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158쪽.

내무상이었던 박일우를 안동으로 파견하여 동북변방군 사령관들을 만나게 하였다.²⁰⁾ 그리고 10월 1일 스탈린도 북한을 돕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대가 있으면 최소 5~6개 사단을 신속히 38선으로 보낼 것을 중국에 건의하였다.²¹⁾ 북한과 소련이 중국의 직접 참가를 요청하고 있을 때,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에서는 참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마오쩌둥의 의사가 관철되어 6·25전쟁의 참전이 결정되었다.

10월 8일 전쟁의 참전을 결정한 중국은 동북변방군을 중국인민지원군(中國人民志願軍)이라는 이름으로 개칭했다. 그들은 10월 19일 압록강을 건너 25일 첫 전투를 치렀다. 이들이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은 변화되어 수세에 몰렸던 북한은 전세를 역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쟁이 진행되면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 간극이 생겼다. 그것은 전투 진행 중 작전의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1950년 11월 4일 중국인민지원군 제39군은 박천 부근에서 미 제24사단을 포위 공격하였으나, 순천을 향해 진격하던 북한군 탱크사단이 제39군을 오인하여 공격하는 바람에 미군이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그것이다.²²⁾ 이것은 북한과 중국이 각각의 사령부에서 지휘하는 체제로 전쟁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전의 통일성을 위해서 지휘권의 단일화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원래 작전지휘권에 대한 문제는 중국이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부터

20) Tsui David,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IX), 협상을 위한 외교: 1950년 6월~10월 (2),” 『전략연구』, 통권 제43호(2008), 209쪽.

21) “史達林關於建議中國派部隊援助朝鮮問題致羅申電(1950年 10月 1日),” 沈志華 編,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 中冊, 571面.

22) 이종석, “한국전쟁 중 중·조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 『군사』, 제44호(2001), 51쪽.

양측이 고려하고 있었던 사안이었다. 10월 8일 중국이 처음 참전을 결정했던 당시 박일우는 선양에 도착하여 중국의 참전을 요청함과 동시에 중국군의 지휘본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여기서 박일우는 중국군의 지휘본부를 덕주에 설치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주장을 평더화이(彭德怀)²³⁾와 가오강(高崗)에게 전달하였다. 하지만 이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작전통수권과 관련된 것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당시 유엔군이 북상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군이 입북한다면 자연스럽게 중국군이 북한지도부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²⁴⁾ 하지만 이는 김일성만의 생각이었고 중국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은 작전 지휘권에 관한 문제를 스탈린에게 직접 제기하였다. 10월 14일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스탈린에게 중국인민해방군은 지원군의 형식으로 한반도에 들어가 작전을 진행하는데, 북한군과 합동 작전을 할 때에는 쌍방의 지휘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고 문의하며,²⁵⁾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기를 원하였다. 이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작전 지휘권이 북한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스탈린이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10월 21일 김일성과 평더화이가 대유동(大榆洞)에서 처음 만났을

23) 평더화이(彭德怀, 1898~1974): 1898년 후난성(湖南省) 출생. 토지혁명전쟁 시기 홍군 5군 군단장, 홍군 3군 군단장. 항일전쟁 시기 팔로군 부사령원, 제18군 부사령원 등. 항미원조 전쟁 시기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겸 정치위원, 중조연 합사령원 겸 정치위원, 중공지원군 당위원회 서기, 1954년 9월 국방위원회 부주석, 국무원 부총리 겸 국방부장, 1956년 중국 공산당 제8기 정치국 위원으로 중국군의 현대화 건설을 주도함. 陳忠龍 主編, 『中國人民志願軍人物志』, 1面.

24) 양진삼, “전쟁 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588쪽.

25)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한국전쟁과 중국』 II(대전: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2002), 23쪽.

때, 그들은 모두 군사지휘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였다.²⁶⁾

그러나 전쟁의 과정 중 작전의 지휘권이 일치되지 않고 진행된 전투는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11월 말 연합사령부의 구성 문제를 논의하였던 김일성과 슈티코프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김일성은 평더화이와 함께 연합사령부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일성은 연합사령부를 설치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으며, 박일우에게 지시하여 평더화이와 함께 논의하라고 하였지만, 평더화이가 연합사령부 구성문제에 대한 논의를 11월 이후에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당시 조선로동당 정치위원회에서는 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김책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논의의 결과를 가지고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박헌영을 보내서 해결하려고 하였지만,²⁷⁾ 마오쩌둥은 김일성이 직접 방문하기를 요청하였다.²⁸⁾

마오쩌둥의 요청에 따라 12월 3일 베이징을 방문한 김일성은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가오강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 내용은 전쟁문제, 통일지휘문제, 군대문제, 양당 간의 관계 문제 등이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은 연합사령부 설치에 서로 합의하고, 연합사령부의 사령원 겸 정치위원은 평더화이, 부사령원은 김웅, 부정치위원은 박일우로 결정하였다. 회담 후 저우언라이는 “중조쌍방연합지휘부의 성립

26) 양진삼, “전쟁 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105쪽.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가 소련외무성 제1부상에게 보낸 전문, 조중 연합사령부 구성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과 회담한 결과, No. 60, 1950년 11월 24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217~219쪽.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가 소련외무성 제1부상에게 보낸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의 중국 방문과 관련한 조중회담에 대하여, 1950년 11월 29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222쪽.

에 관한 중조쌍방의 협의(中朝兩方關於成立中朝聯合指揮部的協議)”의 초안을 작성하였다.²⁹⁾ 이후 북한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연합사령부가 12월 상순 정식으로 창설되어 ‘연사(聯司)’라고 간략히 불리어졌다.³⁰⁾

그러나 연합사령부의 구성문제는 전쟁 중 작전지휘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연사가 창설되면서 철도 관리 역시 중국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 12월 말 중국 측 사령관 류취잉(劉居英),³¹⁾ 정치위원 위광성(余光生), 부사령관 예린(叶林)으로 구성된 동북군구철도운수사령부(東北軍區鐵道運輸司令部)가 설립되어 전선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철로 수리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은 조선철도군사관리국(朝鮮鐵道軍事管理局)을 임시로 설립하여 중국과 공동으로 철로관리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공동으로 관리하는 철도관리 역시 통일된 지휘체계가 없어 문제가 발생하였다.

1951년 2월 중국 측의 철로 관련 협상대표였던 장밍위엔(張明遠)³²⁾

29) 周恩來軍事活動紀事編寫組, 『周恩來軍事活動紀事』 下(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0), 168~169面.

30)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제2권, 박동구 옮김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259~260쪽.

31) 류취잉(劉居英, 1917~?): 지린성(吉林省) 창춘시(長春市) 출신, 1935년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가입, 12·9운동 참가. 1936년 중국 공산당 전입, 토지혁명전쟁 시기 중공 허난성(河南省) 위시(豫西) 특파원, 중공동북특위 조직위원. 항일전쟁 시기 산둥항일유격대 제4지대 1연대 정치위원, 중공중앙 산둥분국 사회부 부장, 산둥성 정치비서장 겸 공안청 청장. 해방전쟁 시기 창춘시장 겸 보위사령부 정치위원, 지린성 정부 비서장, 동북민주연군 지헤이(吉黑)지대 정치위원, 동만군구 병참사령원, 중앙군위철도부 하얼빈, 선양 철로국 국장 등.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중장철로관리국 사령원. 항미원조전쟁 중 동북군구 철도운수사령부 사령원, 중조연합철로운수사령부 부사령원, 전방철도운수사령부 사령원 겸 정치위원 겸 군관총국국장, 중조연합신건철도이사회 부주석. 陳忠龍 主編, 『中國人民志願軍人物志』, 262面.

에 의하면 당시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은 연합운수사령부의 지휘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느냐의 문제였다고 한다. 중국은 당시 북한의 철도와 기관차 대부분이 훼손된 상태에서 철도에서 운행할 대부분의 차량을 본국에서 들여오고 있었다. 또한 철로의 수리, 물자수송부대 및 탑승인원 모두가 중국인이었으며, 심지어 철도를 수리하는 기계와 일부 북한의 철도를 담당하는 인력 역시 중국이 공급을 책임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철도운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휘에 실질적인 협조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북한과 북한 주재 소련고문은 철도운수의 관리권은 국가의 주권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에서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³³⁾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스탈린에게 맡겨졌다. 스탈린은 “부대의 구성과 전쟁물자의 전선 수송계획은 정확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철도는 반드시 중국사령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선양 주재 소련 영사의 보고에 의하면, 김일성은 이 의견을 지지했지만, 북한의 다른 사람들이 이 의견에 반대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약 나와 소련공산당중앙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중국에서 담당하는 것을 지지하며, 이것은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도, 북한과 중국의 더욱 밀접한 국가적 관계를

32) 장밍위엔(張明遠, 1911~1996): 간수성(甘肅省) 민현(岷縣) 출신, 1931년 5월 영도(寧都) 봉기 참가, 중국공농홍군에 편입되어 동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 토지혁명전쟁 시기 홍5군단 소대장, 중대장, 홍1방면군 정치보위국 특무대장, 경찰과장 등. 항일전쟁 시기 팔로군 교통관리국 국장, 군위군사공업국 총무처 처장, 중공 중앙당교 1부 교무처처장. 해방전쟁 시기 라오닝성군구 후방병참 부부장,嫩江(嫩江)군구 후방부부장, 동북군구 후방 무기부 부장, 제4야전군 후방 무기부 부장.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동북군구 후방 부부장, 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무관, 동북군구후방 전방지휘소 담당자, 중국인민지원군 후방사령부 부사령원, 지원군 후방부부장. 陳忠龍 主編, 『中國人民志願軍人物志』, 636面.

33) 張明遠, “風雲戰勤-憶抗美援朝戰爭的后勤保障,” 『当代中國史研究』, 第6期(2000), 34面.

형성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라는 전문을 보냈다.³⁴⁾

결국 1951년 5월 4일 중국과 북한은 베이징에서 “조선철로의 전시 철로관리제도에 관한 협의(關於朝鮮鐵路戰時軍事管制的協議)”를 체결하고 관리체제, 조직기구, 수송력 부분 등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다.³⁵⁾ 철로 관리권은 북한의 내정과 주권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연합사령부 구성문제보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더욱 첨예한 대립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과 중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합동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으나, 1951년 중반이 되면 전쟁 진행과정에서 대부분의 권한이 중국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연합사령부가 조직되어 중국의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은 현실화되었다.

1966년 8월 9일 소련 외교부에서 작성한 6.25전쟁에 관한 보고서에는 중국인민지원군이 주둔하고 있는 기간에 중국인이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는 일이 허다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박일우는 북한군 수석대표지만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에서 머물렀는데, 김일성은 그가 흡사 마오쩌둥의 대표인 것처럼 처신하고, 조선로동당의 지도 권위를 훼손하려 들었으며, 스스로 당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고 비난하였다. 즉 중국은 박일우를 이용하여 김일성을 반대하도록 선동하였고, 평터화이는 김일성의 군사지휘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는 것이다.³⁶⁾

결국 중조연합사령부 구성 이후 전쟁 주도권은 이미 북한에서 중국

34) 선즈화, 『마오쩌둥 스탈린과 한국전쟁』, 최만원 옮김(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0), 406쪽.

35) 沈志華, “朝鮮戰爭期間 中朝高層의 矛盾, 分歧及其解決” 中, 『WANXIA』(2008), 41~43面.

36) “蘇聯外交部關於朝鮮戰爭的背景報告(1966年 8月 9日)－關於1950~1953年朝鮮停戰及停戰談判,” 下冊, 1347面.

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소련은 전쟁 진행에 있어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였지만, 이들 군사고문단은 전쟁의 큰 틀에서만 조언을 해주었을 뿐이고 실제 개별 전투 등은 중조연합사령부에서 처리하였다. 따라서 3차 전역부터는 중조연합사령부의 지휘에 따라 전쟁이 진행되었다.

3. 정전회담 시작 전의 각국의 입장

1951년 5월 31일 미국의 전 소련 대사인 케난(G. F. Kennan)이 유엔 주재 소련 대표인 말리크(A. V. Malik)를 만나 미국은 유엔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중국과 6·25전쟁을 종결짓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당시 미국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전쟁의 상황이 지연되면서 전쟁에 참여할 인적 자원이 고갈된 상태였다. 미국 시민들과 의회는 미군 사상자의 증가를 걱정하였고, 1951년 5월까지 피해자의 숫자는 6만 명을 넘어섰다고 알려졌다.³⁷⁾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케난과 말리크의 첫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6월 5일 두 번째 회담이 개최되었다. 케난은 회담 참가국, 의제, 정전감시위원회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말리크는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지만 소련은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전 회담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므로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대상으로 직접 회담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다. 하지만 케난은 북한과 중국을 믿기 어렵고 이 전쟁의 실질적인 막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소련으로 하여금 회담에 참여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말리크는 이를 거절하였다.

37) 윌리엄 스톡, 『한국전쟁의 국제사』, 김형인 외 옮김(서울: 푸른역사, 2001), 378쪽.

결국 케난은 이 회담을 통하여 몇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소련은 6·25전쟁이 미·소 간의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 소련은 미국의 지상군이 만주나 북·소 국경에 출현하고 미국의 공군이 만주에 있는 소련의 전략 지점이나 기지에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 셋째, 소련의 궁극적 관심은 위신에 손상을 입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바란다는 점, 넷째, 미군이 38선을 넘었을 때 소련은 자국의 개입이 불가피하였으나 미·소의 대결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공군의 개입을 이끌어냈을 것이라는 점, 다섯째, 그러므로 현재 미국이 정전의 의사 없이 계속 북진할 경우 소련으로서 직접 개입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점, 여섯째, 현재 소련이 침묵하면서 6·25전쟁의 개입을 은인자중하고 있는 것은 크레믈린 내부의 정책 결정에 격심한 동요가 있음을 의미하며, 소련의 결단의 순간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다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케난은 전쟁은 조속히 종식되어야 하고, 38선 부근에서 정전을 하더라도 그것은 소련에게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³⁸⁾

6월 23일 표면적으로는 케난의 예측대로 정전을 거부하던 소련의 말리크가 유엔에서 교전국가들의 직접적인 정전교섭을 제안하였다. 이는 북한, 중국과 소련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정전교섭에 대한 제안을 수락하였다.³⁹⁾

하지만 케난의 예측과는 다르게 소련의 말리크가 정전교섭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1년 5월 하순,

38) 신복룡,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비밀 협상에 관한 연구: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265~267쪽.

39) 와다 하루끼, 『한국전쟁』, 서동만 옮김(파주: 창비, 1999), 221쪽.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향후 전략을 검토하였다. 이 회의 내용 중 5차 전역 후의 진로에 대해서 토론하였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한국을 통일하겠다는 전쟁 목표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38선에서라도 전쟁을 중단하지는 의견을 제출하였다.⁴⁰⁾ 그리고 6월 3일 김일성이 베이징(北京)을 방문하여 마오쩌둥과 회담하면서 정전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⁴¹⁾

하지만 케난의 분석과는 다르게 소련은 정전회담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6월 4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의 답신에서 스탈린은 마오쩌둥과 같은 의견이지만, 한반도 전쟁은 지구전이기 때문에 진척을 조금씩 해서 안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은 6.25전쟁을 통해 현대전을 경험할 수 있고, 장차 미국의 트루먼 정부를 동요시키고 미·영 군대의 군사적 위신을 추락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스탈린은 전선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6.25전쟁은 공산권에 유리한 전쟁이고, 6.25전쟁으로 세계 여론에서 미국의 위신이 추락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같은 날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베이징을 방문한 김일성과 가오강을 소련으로 보내 재정 문제, 전선에서 직접 군사행동을 취하는 문제 등 한반도에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하기를 요청하였고,⁴²⁾ 스탈린이 이를 허용하여 6월 10일 김일성

40) 양규송, “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536쪽.

41) 신복룡은 1951년 6월은 교전 당사국은 물론 이해관계국에게 있어서 정전을 추진하기에는 최적의 시기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문제는 그들이 각기 어떻게 국가적 체면을 지키면서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제기할 수 있느냐였다고 한다. 신복룡,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비밀 협상에 관한 연구-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255쪽.

42) “毛澤東關於金日成和高崗赴蘇問題致史達林電(1951年 6月 5日),” 沈志華 編,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 中冊, 784~786面.

과 가오강은 소련을 방문하였다.

6월 13일 스탈린은 김일성과 가오강과의 회담에서 6·25전쟁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았다. 스탈린은 중국이 제시한 60개 사단의 무기장비 지원요청을 승낙하고, 또한 평더화이가 요청한 군사고문 파견에 대해서도 승인하였다.⁴³⁾ 그러나 가오강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38선을 경계로 정전담판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스탈린은 “중국이 아주 잘 싸우고 있는데, 왜 정전을 하려고 하는가, 계속 싸울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다. 나는 미국인의 심리를 잘 아는데 당신들이 한 명의 미군이라도 싸워 죽여서 그들이 그 관을 미국 내로 송환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는 이 전쟁을 반대하는 압력이 더욱 거세어져 마침내 정전하려는 측은 반드시 미국이 될 것이다.”라고 정전담판 문제에 반대하였다.⁴⁴⁾ 하지만 김일성과 가오강이 계속해서 북한과 중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설명한 뒤에야 스탈린은 양보하였고, 회담 후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에는 간단하게 현재 정전을 한다면 좋은 일이라고 언급하였다.

정전회담 시작에 대한 허가를 얻은 뒤에도 북한과 중국은 회담을 진행하는 과정도 소련이 주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1951년 6월 30일 스탈린이 회담 문제에 관해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보에는 북한과 중국의 주도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의 정전회담 논의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내고, 그 서명은 북한군 총사령관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평더화이의 명의로 할 것을 지시하면서 총지휘권을 마오쩌둥에게 위임하였

43) “史達林關於停戰和空軍使用問題致毛澤東電(1951年 6月 13日),” 沈志華 編,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 中冊, 806面.

44) 양규승, “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537~538쪽.

다.⁴⁵⁾

6월 30일 미국에서 평화회담에 관한 성명서가 도착하자 김일성과 평터화이는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에게 군사행동을 정지하고 평화 회담을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며 다만 회담 장소를 38선상에 위치한 개성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⁴⁶⁾ 같은 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미국이 정전회담을 요청한 이유를 두 가지로 평가하였다. 첫째, 전쟁 과정 중 미국은 군사적·정치적 손실이 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인적·물적 손실은 더 이상 보충할 힘이 없다는 것이었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반미반전은 운동이 확산되어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당시 발표만 하더라도 북한은 정전을 해도 좋고 전쟁을 계속해도 좋다는 입장에 있었다.⁴⁷⁾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정전회담에 대한 주도권을 준 이후 마오쩌둥은 베이징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였다. 마오쩌둥은 정치위원 셰팡(解方)에게 정전회담 장소로 사용할 만한 건물이 없으므로 천막을 준비하고 물품과 장비를 챙기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하였다.⁴⁸⁾ 7월 8일 제1차 연락관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회의에 참석하였던 북한·중국 측 대표는 장춘산(張春山),⁴⁹⁾ 차이청윈(柴成文), 김일파(金一波),

45) “史達林關於停戰談判問題致毛澤東電(1951年 6月 30日),” 沈志華 編,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 中冊, 839面.

46) “金日成元帥, 彭德懷將軍對聯合國軍總司令李奇微6月30日通知的夏文一建議以開城爲朝鮮停戰談判會址(7月 1日),” 劉金質, 楊准生 主編,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 文件匯編』 1(1949~1952)(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189面.

47) 『김일성전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466~470쪽.

48) “關於共同籌備談判會場及開會事宜給金日成的電報(一九五一年七月四日),” 毛澤東 著, 『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2冊(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88), 383面.

49) 북한군 최고사령부 동원국장 김창만(金昌滿)이 장춘산으로 개명하였다.

필계용(畢季龍), 도옥호(都郁浩)였고, 이 회의에서 정식회담을 1951년 7월 10일 오전 10시 개성 내봉장에서 거행하기로 결정하였다.⁵⁰⁾ 7월 10일 제1차 정식회담에 참가한 대표로 미국·남한 측 대표는 조이(C. Turner Joy), 호데스(Henry I. Hodes), 버크(Arlergh A. Burke), 크레이기(Sawrence C. Craigie), 백선엽이었고, 북한·중국 측 대표는 남일, 이상조, 장평산, 덩화, 세광이었다.

4. 정전회담 중 북한·중국의 대립과 정전협정 체결 과정

1951년 7월 10일 제1차 본회담 시작 후 유엔 측과 공산 측은 개성 중립지역 위반 사건, 의제설정 등의 대립과 논쟁 끝에 26일 정전회담 의제를 결정하였다.⁵¹⁾ 그리고 7월 27일부터 본회담에서 정전회담 의제 제2항인 군사분계선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정전회담 시작 후, 북한과 중국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라주바예프(B. H. Pazybaev)가 모스크바에 보낸 보고서이다. 그 보고서는 정전회담이 일시 중단되었던 9월 10일 발송된 것으로 정전회담 중 북한의 정치적 분위기와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⁵²⁾ 보고서를 통해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정치적 분위기를 보면 북한의 지도자들은 이제 전쟁은 끝났고, 한반도가 통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들은 부득이하게

50) 시성문·조용진,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149쪽.

51) 정전회담 의제는 ① 의제의 채택, ② 군사분계선의 설정, ③ 정전감시기구의 설치, ④ 포로교환문제, ⑤ 양측의 관계제국정부에 대한 권고로 결정되었다.

52) “拉祖瓦耶夫關於停戰談判中出現的政治情緒及中朝關係的電報(1951年 9月 10日),” 沈志華 編,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 下冊, 1022~1026面.

전쟁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 북한은 특히 1951년 6월 23일 소련 대표 말리크의 정전교섭 제안을 중국이 정전을 원하고 있으며, 전쟁의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말리크의 성명 후 북한 언론, 홍보기관은 이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고 이후 리지웨이가 김일성에게 답판을 시작하자는 요청을 한 후에야 말리크의 제안에 대한 환영의 표시를 하였다. 이 당시 북한의 사회적 분위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전쟁에 대해 혐오감을 가져 전쟁의 종지를 희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정전이란 최후의 승리가 좌절된 것으로 보았다.

둘째, 북한과 중국 사이에 정전협정의 관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김일성과 다른 지도자들은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군사적·정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전답판이 북한의 위신을 떨어뜨리지 않고,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진행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정전협정을 체결하기만 한다면, 미국에게 양보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보고서 내용 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전협상 과정에서 김일성이 제안한 의견을 중국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7월 12일 외국기자의 개성방문 문제에 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김일성은 이미 리지웨이에게 보내는 답변을 기안하였지만, 중국은 김일성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그들이 답변 내용을 통보하여 김일성이 불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7월 27일 회담의제 제2항인 군사분계선 설정문제를 논의할 당시 마오쩌둥은 만약 미국이 현재의 전선으로 분계선을 결정할 것을 승인한다면, 중국은 미국에게 양보할 수 있다고 김일성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김일성은 이런 양보는 북한에 정치적 타격을 가져올 것인데,

미국에 의해 점령된 지역이 경제와 전략 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회신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은 박헌영과 회담 중 “내가 차라리 중국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낫지, 이런 양보는 하기 싫다. 나는 차라리 다시 유격전쟁을 시작하겠으니, 당신들은 지하상태로 들어갈 준비를 해라.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은 이런 조선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이것은 회담 초기부터 북한과 중국 사이에 간극이 벌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실제로 김일성은 정전회담 과정에서 단지 부차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정전에 대한 그의 의견을 마오쩌둥에게 제시하였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마오쩌둥이 내렸다. 김일성은 소련이 정전회담 기간에 정전협정 과정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6·25전쟁 당시 전쟁의 직접적 개입을 꺼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전문제 해결도 북한과 중국이 해결하기를 권유하면서 마오쩌둥에게 주도권을 넘겼다.

주지하다시피 정전회담 의제 중 유엔 측과 공산 측이 가장 대립했던 주제는 포로송환 문제였다. 정전회담 의제 제4항인 포로송환 문제는 1951년 12월 11일부터 분과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제4항 포로송환 분과위원회 대표로 유엔 측에서는 리비(R. E. Libby)와 히크맨(G. W. Hickman, Jr.)이 공산 측에서는 이상조와 차이청원이 참석하였다. 유엔 측은 공산 측에게 쌍방에게 억류되어 있는 포로의 식별, 포로수용소의 위치, 각 수용소 내에 있는 인원수 및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포로수용소 출입에 대한 신속한 허가 등을 제안하였다.⁵³⁾ 그러나 다음날 공산 측은 이 안을 거부하면서 몇 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첫째, 쌍방은

53) 대한민국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회, 『한국전란 2년지』(1954), C66쪽.

쌍방이 억류하고 있는 전 포로를 석방하지는 원칙을 결정할 것, 둘째, 쌍방은 휴전협정 조인 후 가급적 단기일 내에 억류 중에 있는 전 포로를 집단적으로 석방하고 송환을 완료하는 데 합의하고, 중상을 당하거나 중병에 걸린 포로는 제1차적으로 석방·송환될 우선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정할 것, 셋째, 개성의 관문점을 쌍방이 포로를 송환하고 인수받는 장소로 정하도록 권고할 것, 넷째, 상기협정에 의거하여 포로의 송환 및 인수에 관한 문제를 취급할 책임을 가질 포로송환 위원회를 휴전위원회 관하에 설치하기 위하여 동수의 인원을 쌍방은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권고할 것, 다섯째, 일단 상기의 항목에 상호 간 합의하고 그것을 결정하면 현재 쌍방이 각각 억류하고 있는 포로의 명부를 교환할 것 등 5개항이었다.⁵⁴⁾

논의는 계속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유엔 측의 요구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12월 18일 포로 명부가 교환되었다. 포로 명부에는 유엔 측이 제시한 명부가 132,474명, 그리고 공산 측이 제시한 명부가 11,559명이었다.⁵⁵⁾ 포로 명부가 발표되고 양측은 서로 예상한 숫자보다 적은 수에 서로 이의를 제기했다. 유엔 측 대표 리비는 모든 송환은 포로자신의 자유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자유송환원칙’을 최초로 천명하였으며, 1952년 1월 2일의 성명에서 1 : 1 교환원칙을 주장하였다.⁵⁶⁾ 다음날 공산 측은 유엔 측의 제안에 공식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 내용은 부정적인 것이었다.⁵⁷⁾ 포로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고, 4월 4일에 이르러 포로들을 재분류하여 양측에게 송

54) 위의 책, C67~68쪽.

55) 위의 책, C70쪽.

56) 위의 책, C77쪽.

57) 위의 책, C78쪽.

환될 최종적인 포로 수를 확인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포로들의 재분류 작업이 시작되었다. 재분류 작업 후 발표된 숫자는 공산포로 13만 2,474명 중 7,000명만이 송환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민지원군 출신은 원래 포로 명부에 있던 20,700명의 포로 중 단지 5,100명만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⁸⁾ 이에 공산 측은 이 숫자를 오류이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난과 추궁을 되풀이하였다.

실제로 정전회담 의제 중 포로 문제에서 회담이 지연된 것은 중국의 입장 때문이었다. 포로 문제는 송환을 희망하는 자들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송환자가 적을 경우 자신들의 정통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도 판단했을 수 있다. 당시 중립국 감독위원회 위원장 티마야에 의하면 포로 송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은 이데올로기적 투쟁에서 포로들의 생각을 자기편으로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국가의 승리를 의미하였고, 반대로 설득당한 포로들이 많은 경우에는 패배를 뜻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⁵⁹⁾

1952년 2월 김일성의 입장은 가능한 한 답판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전쟁포로문제가 계속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았고, 중국인민지원군 포로의 대부분이 이전에 장제스 군대의 사람들로서 정치적으로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으며, 그들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답판 대표인 남일에게 이 문제에 대해 태도를 분명히 하고 리커농(李克農)의 명의로 전쟁포로문제에 있어서 양보할 것을 건의하도록 지시하

58) 양대현, 『역사의 증언: 휴전회담비사』(서울: 형설출판사, 1993), 224~225쪽.

59) K. S. 티마야, 『관문점 일기』, 라운도 옮김(서울: 소나무, 1993), 41쪽.

였다.⁶⁰⁾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다른 통로로도 전달되었다.

1952년 2월 8일 평터화이는 마오쩌둥에게 1952년 1월 16일 박헌영이 내방하여 대담한 내용을 전문으로 발송하였다. 회담 중 박헌영은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있으며 더 이상 전쟁 지속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일 소련과 중국이 전쟁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그 어떤 곤란도 극복하고 현재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말하였다.⁶¹⁾ 이 당시 박헌영과 평터화이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은 정전회담의 빠른 진행과 조속한 결과를 희망하였다는 것이다. 박헌영은 우회해서 조선인민들이라고 언급하였지만, 김일성은 남일에게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박헌영을 통해서도 전쟁의 조기 종료를 요청한 것이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중국은 전원송환을 주장하였고, 미국은 자원송환 원칙을 요구함으로써 양측의 주장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김일성과 평터화이가 클라크(Mark W. Clark)에게 보낸 서신에는 전원송환 원칙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었다. 이들은 제네바원칙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전원송환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우리는 양방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협상의 여력을 남기지 않고, 세계인민이 희망하는 정전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합리적 기초에서 전쟁포로 귀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방 대표는 담판 중에 협의를 해야 하고 양방 귀환 포로가 다시는 6·25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고,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는 것으로 해야 한다. 우리 대표는 이러

60) 양규승, “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543~544쪽.

61) A. V. 토르크노프,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구종서 옮김(서울: 에디터, 2003), 393쪽.

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찍이 제일 공평한 방안을 제출하였다. 즉 양측의 외국군 무장인원(연합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은 전부 철수해야 하며, 양측 한반도 무장인원(한국군과 조선인민군)은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야 하며,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가면 귀환은 필요하지 않고, 이런 방안은 세계가 공인한 1949년 제네바 공약 정신에 부합한다.⁶²⁾

1952년 7월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현 상태에서 유엔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적으로 하여금 더 큰 야심을 품게 만들어 우리의 위신은 최악의 상태로 추락하고 만다. 우리가 적의 제안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고 적이 교섭을 결렬시키는 사태에 충분히 대비한다면, 적들이 감히 교섭결렬이라는 우를 범하지는 못할 것이다. 교섭의 장기화 과정을 통해 일관되게 우리의 관점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적 측이 쫓기는 입장에 몰릴 것”이라며 전원송환 원칙을 고수했다.⁶³⁾

시간이 경과되면서 북한과 중국은 정전회담에 대한 원칙으로 같음이 더욱 심화되었다. 1951년 중반 정전회담 초기 김일성의 입장은 정전을 조속히 진행하려는 마오쩌둥의 태도에 불만이 있었고, 북한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에 대해 불쾌해했다. 하지만 협상이 지연되고, 북한 측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북한은 조기에 정전협상을 마무리하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1952년 7월 16일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전쟁의 지연으로 어려움을

62) “金日成彭德怀兩將軍就美方片面宣布休會3天事給克拉克的信(1952年 6月 9日),” 劉金質, 楊准生 主編,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 文件匯編』 1(1949~1952), 319面.

63) A. V. 토르쿠노프,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398쪽.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김일성은 회담이 진행된 후 1년 동안 북한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는데, 적 공군의 활동으로 북한 내 모든 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되어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알렸다. 또한 1952년 7월 12일 평양에서 6,000명 이상의 주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했다.⁶⁴⁾ 그리고 김일성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공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무기, 항공기 등을 요구했다.⁶⁵⁾

마오쩌둥은 1953년 초에도 정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국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마오쩌둥은 항미원조투쟁을 강화할 것을 지적하면서 정전문제를 거론하였다. 마오쩌둥은 중국은 정전을 우선적으로 바라지만 미국이 이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미국이 원한다면 몇 년 동안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북한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이 승리할 때까지 전쟁을 지속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⁶⁶⁾

하지만 전쟁이 지연되면서 공산 측 내부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1953년 1월 17일 소련 육군상과 소련군 참모장이 스탈린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인민지원군 산하에 있던 군사고문단을 소환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평터화이가 이끄는 중국인민지원군 지휘부가 베이징으로 이전하자 향후 중국인민지원군의 전투행동은 베이징에서 원격지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따라서 군사고문단의 북한 주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나온 결정이었다. 즉 중국인민지원군의 지휘에 관한 모든 원칙적인 결정이 베이징

64) 『로동신문』에 따르면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평양, 사리원, 황주 등지에 미군의 폭격으로 약 1,000여 명의 민간인들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 1952년 7월 14일.

65) 대한민국외무부,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1953』.

66) 『人民日報』, 1953년 2월 8일.

의 평터화이로부터 나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인민지원군 지휘부와
와의 연락유지 임무를 주중 총군사고문에게 부여하는 것이 더 편리하
고, 한반도 전선의 상황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는 라주바예프와 주중
소련 총군사고문에게 받는 것으로 결정하였다.⁶⁷⁾ 당시 북한은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정전회담 지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김일성은 중국에게 전쟁의 지휘권을 빼앗겼고, 초기에 스탈린에게 자
신이 전쟁을 개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었기 때문에 쉽게 정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의 죽음은 한반도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다. 스탈린 사망 후 소련은 긴급각료회의를 소집하여 6.25전쟁
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이 소식을 북한과 중국
에 통보하였다. 소련의 6.25전쟁에 대한 정전입장의 수용은 북한에게
는 반가운 소식이었고, 이 소식을 받고 가장 기뻐한 사람은 김일성이
었다.⁶⁸⁾ 그리고 소련정부의 제안에 김일성도 동의하였다. 당시 김일
성은 한반도에서 북한 측의 손실이 매일 300~400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전쟁포로의 송환
규모에 관해 미국과 논쟁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의
문을 제기한 상태였다.⁶⁹⁾

따라서 공산 측은 1953년 2월 22일 전쟁포로 중 부상당한 포로를

67) “소련 육군상과 소련군 총참모장이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보고서, 조선
주둔 중국인민의용군 총참모부 산하 소련 군사고문관들의 소환에 대하여, No.
546702, 1953년 1월 17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
1953년』, 611쪽.

68) 대한민국 외무부, 『한국전쟁 러시아 관련 외교문서』(1994.7.20. 내부용 번역본).

69) “쿠즈네초프, 페도넨코가 보낸 특별암호전문 No. 362, 363. 1953. 3. 29,” 대한민
국외무부,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문서: 보충문헌, 1949~1953』.

우선적으로 송환하자고 제안했던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의 성명⁷⁰⁾을 받아들여 4월 11일 상병(傷兵)포로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1953년 6월 8일 오후 2시 공산 측 수석대표 남일과 유엔 측 수석대표 해리슨 중장이 판문점에서 회담하고 전쟁포로송환 협의의 최종 타결을 이끌어내었다.⁷¹⁾ 이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양측이 서명하였다. 정전협정의 서명은 중국·북한을 대표해서 남일이, 유엔군을 대표해서 미국의 해리슨(William K. Harrison, Jr.) 장군이 각각 서명하였다. 또 회담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김일성과 평더화이, 클라크 장군 등이 전쟁의 최종 당사자 자격으로 정전협정에 각각 서명하였다.

6·25전쟁이 정전협정이라는 형식으로 종결되자, 김일성과 평더화이는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은 침략을 저항하며 평화를 보위하는 영웅한 전쟁을 3년이나 경과하였고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쟁취하는 정전 담판을 2년이나 견지하였다. 현재 벌써 조선 정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었고 연합국군과 조선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북한군과 중국인민지원군에게 정전명령을 발표하였다.⁷²⁾

그렇다면 전쟁은 북한과 중국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정전 후 1954년 3월 평양에 있던 2등 서기관 페트로프(П. М. Петров)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통계국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한 “1950~195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의 총 손실 규모”에 따르면,

70) “拉祖瓦耶夫轉呈的克拉克關於交換病像戰俘的信(1953年3月14日),” 沈志華 編,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 下冊, 1278面.

71) “朝中代表團關於戰俘遣返問題的協議的公報(1953年 6月 8日),” 劉金質, 楊淮生 主編,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 文件匯編』 2(1953~1957)(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453面.

72) 『로동신문』, 1953년 7월 28일.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북한에 가해진 총 물질적 피해는 4,201억 2,800만 원이었다.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국가부문의 물질적 손실은 2,301억 7,500만 원, 개인부문의 물질적 손실은 1,710억 4,000만 원, 정당, 협동·사회단체가 입은 손실은 189억 1,300만 원(1953년 4월 30일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환산된 것)이었다. 이 물질적 피해에 대한 총 금액을 산정하는 데는 공업과 농업생산 축소로 인해 입은 손실과 유출, 노동력 상실 및 군 징집과 관련된 피해, 기업의 소가와 재소개로 인한 지출과 비용, 파괴된 군 시설에 대한 비용과 손해 그리고 여타 군사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⁷³⁾ 북한은 한반도 통일이라는 목표하에 전쟁을 도발하였지만, 전후 엄청난 손해를 입었고 정전협정 체결 후에는 전후복구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전 후 중국의 입장에서는 포로송환 숫자가 문제시 되었다. 6·25 전쟁 중 중국인민지원군은 2만여 명이 포로가 되었고, 그들 중 7,110 명이 중국으로 돌아갔으며, 1만 4,000여 명이 타이완을 선택하였다.⁷⁴⁾ 중국으로의 송환은 전체 전쟁포로 가운데 1/3을 약간 넘긴 7,110명인데 반해, 타이완으로의 송환을 선택한 포로의 수는 1만 4,000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포로들의 선택 결과는 미국과 장제스의 반공선전에 대대적으로 이용되어 중국의 정치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을 주었다.⁷⁵⁾ 하지만 스톡은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중국이라고 평가하였다. 중국은 전쟁을 통해 국제적 위상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7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에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3권, 41쪽.

74) 大鷹, 『志願軍戰俘記事』(北京: 昆崙出版社, 1987), 3面.

75) 양규승, “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555쪽.

우월한 위치를 과시할 수 있었고, 그 영향력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제3세계로 확장되었다고 분석하였다.⁷⁶⁾ 중국은 6·25전쟁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신생 중화인민공화국의 위력을 아시아에 보여주었고, 북한에게는 국공내전기 받았던 도움에 대한 보답을 해준 것이 되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6·25전쟁을 통해 ‘항미원조보가위국’을 주장하면서 중국인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었다.

5. 결론

1950년 발발한 6·25전쟁은 소련의 인적·물적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김일성은 전쟁 초기 중국의 도움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인천상륙작전 이후 소련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방치하자 중국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위기에 처하자 중국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였고, 북한의 전쟁을 도와주었다. 하지만 전쟁 과정 중 작전지휘권의 불일치로 사고가 발생하자 북한과 중국은 중조연합사령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중조연합사령부의 구성은 전쟁의 주도권이 중국에게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전쟁과정 중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은 정전회담이었는데,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유엔 측과 공산 측만의 대립으로 비쳐졌다. 하지만 정전회담이 2년여 동안 지속된 이유에는 공산 측 내에서 북한과 중국의 대립과정 때문이었다. 정전회담 초기 중국은 유엔 측에게 양보를 해서라도 조속한 정전을 실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북한은 국가의

76) 윌리엄 스톡, 『한국전쟁의 국제사』, 711~722쪽.

위신이 손상되지 않는 한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포로송환 문제로 회담이 지연되고, 북한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자 북한은 조기정전을 희망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전협상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결국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소련의 스탈린 사망이었다. 6·25전쟁은 북한과 중국이 진행하였지만, 사회주의진영의 최강국인 소련의 스탈린이 북한의 전쟁 도발을 승인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스탈린의 사망으로 소련정부의 입장이 변화되어 정전협정이 체결된 것처럼 6·25전쟁 중 소련의 역할은 가장 큰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접수: 10월 28일 / 수정: 11월 18일 / 채택: 11월 28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김일성전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2) 논문

김창호, “중국인민의 동북해방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투쟁,” 『력사과학』, 제2호(1994).

3) 신문

『로동신문』, 1952년 7월 14일.

『로동신문』, 1953년 7월 28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A. V. 토르쿠노프,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구종서 옮김(서울: 에디터, 2003).

K. S. 티마야, 『판문점 일기』, 라운도 옮김(서울: 소나무, 199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2·3권(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_____,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_____,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대한민국국방부장훈국전사편찬회, 『한국전란 2년지』(1954).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5).

선즈하, 『마오쩌둥 스탈린과 한국전쟁』, 최만원 옮김(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0).

시성문·조용전,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윤영무 옮김(서울: 한백사, 1991).
 양대현, 『역사의 증언: 휴전회담비사』(서울: 형설출판사, 1993).
 와다 하루끼, 『한국전쟁』, 서동만 옮김(과주: 창비, 1999).
 윌리엄 스톡, 『한국전쟁의 국제사』, 김형인 외 옮김(서울: 푸른역사, 2001).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제1권, 오규열 옮김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_____,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제2권, 박동구 옮김(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
 구소, 2004).
 헬버스텔, 데이비드, 『콜디스트 윈터』, 정윤미·이은진 옮김(서울: 살림, 2009).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한국전쟁과 중국』 II(대전: 행정자치부 정부기록
 보존소, 2002).

2) 논문

Tsui David,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IX), 협상을 위한 외교: 1950년 6월~10
 월(2),” 『전략연구』, 통권 제43호(2008).
 김계동, “한국전 휴전협상의 추진배경 연구: 전선의 안정과 정치적 결말 모
 색,” 『한국군사』, 1권(1995).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김선숙, “한국전쟁의 휴전협상 과정에 관한 연구”(동아대학교 정치학과 박사
 학위논문, 2002).
 김성희, “한국전쟁의 휴전회담에 관한 연구: 쌍방의 협상기법을 중심으로”(경
 회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김행복, “한국전쟁과 휴전회담,” 『통일로』, 통권 191호(2004).
 박태균, “정전협정인가 휴전협정인가,” 『역사비평』, 통권 73호(2005).
 신복룡,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비밀 협상에 관한 연구: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
 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1집 2호(1987).
 신진·김년수, “남북한 관계에 나타난 협상의 이론과 실제: 휴전회담을 중심으
 로,” 『사회과학논총』, 9(1998).
 양규승, “중공군의 정전협상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
 로운 연구』, 1(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양진삼,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국방부 군사
 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

구소, 2002).

여용덕, “휴전회담과 포로 교환,” 『전쟁문학』, 제27집(2007).

이병주, “한국전쟁 휴전회담 신석: 중국 측 신자료로 본 공산군 측 협상전략·전술,” 『중소연구』, 58(1993).

_____, “공산 측과 한국전쟁 정전회담: 스탈린, 마오쩌둥의 협상지도와 전략적 목표의 차이점,” 『군사』, 제5호(2003).

이병태, “6·25전쟁의 휴전회담 과정 고찰,” 『전쟁문학』, 제21집(2005).

이종석, “한국전쟁 중 중·조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 『군사』 제44호(2001).

조성훈, “미국 자료를 통해 본 휴전협상의 지연 요인 연구: 포로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통권 79호(2000).

阪田恭代, “미국의 한국전쟁 휴전에 관한 기본방침의 형성: 중국 참전과 UN군 총퇴각을 중심으로,” 허진영·이진성 옮김, 『군사』, 제63호(2007).

3) 기타자료

대한민국외무부, 『한국전쟁 러시아 관련 외교문서』(1994.7.20. 내부용 번역본).

_____,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문서: 기본문헌, 1949~1953』.

3. 국외 자료

1) 단행본

Zhang Shuguang and Chen Jian eds., *Chinese Communist Foreign Policy and the Cold War in Asia: New Documentary Evidence, 1944~1950*(Chicago: Imprint Publications, 1996).

大鷹, 『志願軍戰俘記事』(北京: 昆侖出版社, 1987).

劉金質·楊准生 主編,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 文件匯編』 1(1949~1952)(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_____,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 文件匯編』 2(1953~1957)(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毛澤東, 『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2冊(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88).

沈志華 編,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 中冊(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

研究所, 1992).

沈志華 編,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下冊(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92).

周恩來軍事活動紀事編寫組, 『周恩來軍事活動紀事』下(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0).

陳忠龍 主編, 『中國人民志願軍人物志』(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997).

2) 논문

沈志華, “朝鮮戰爭其間 中朝高層的矛盾, 分歧及其解決” 中, 『WANXIA』(2008).

張明遠, “風云戰勤—憶抗美援朝戰爭的后勤保障,” 『當代中國史研究』, 第6期(2000).

3) 신문

『人民日報』, 1950年 10月 4日.

『人民日報』, 1953年 2月 8日.

Study of China-North Korea Conflicts over Armistice Talk of the Korean War and the Role of the Soviet Union

Park, Young-sil(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On October 19, 1950,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crossed the Yalu River. After all, the Korean War developed into an international warfare. China decided to enter into the Korean War because of its historical relations with North Korea, not just for fulfillment of its duty to respond to the North Korea's request for help. Chinese troops were sent to the Korean Peninsula as 'volunteer army' and rescued North Korea. However, there was an accident due to conflict in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after China's entry into the Korean War. Therefore, China and North Korea established a combined forces command in December 1950. With a support from Joseph Stalin, China took over the combined forces command authority. Since then, railroad control authority was handed over to China as well. When an armistice talk began on July 10, 1951, China and North Korea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over the talk's agenda. In the beginning of the truce talk, North Korea had wanted to preserve its dignity in signing the armistice agreement. As the talk lasted long, however, North Korea asked for an early settlement. Among the talk's agendas, there was a disagreement on handling Prisons of War(POW). Because China called for the repatriation of all POWs, the truce talk postponed. As a result, the China-North Korea conflict worsened. In 1953 when Stalin died, the armistice was finally negotiated and signed. Even though the Korean War was started by North Korea and China, there was Stalin who approved the invasion. The armistice was also eventually signed because circumstances had changed after Stalin's death.

Keywords: armistice talk, Korean War, Chinese People's Volunteer,
Prisons of War(POW), China-North Korea conflict